

‘추석맞이’ 해남군, 민생경제 활력 더한다

해남읍 2024 동행축제 사은행사...특산물 경품 제공 수산물 구매 금액 30% 온라인상품권 지급 행사도

해남군이 추석예 앞두고 물가안정과 서민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상품권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8일까지 해남읍에서 열리는 2024 동행축제 사은행사 기간 동안 해남읍 상점가에서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5천원권, 10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점포별 합산이 가능하고 1일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지급한다. 당일 영수증만 가능하며 1일 200만원 한정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상품권이나 해남사랑상품권을 10% 할인받아 구매한 후 동행축제에서

활용하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 된다. 사은행사는 ‘꿈 없는 추억의 뽕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해남의 특산물·기념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행사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모바일 결제 사용 시 모바일 구매내역을 매일시장 방문 입구에 마련된 행사장소에서 제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지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

사도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환급 행사는 해남매일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취급 소매, 가공판매업체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건어물 등을 3만4천원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별 당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게 된다. 환급 금액은 1인 최대 2만원이다. 상품권 환급은 구매 후 영수증을 받아 행사기간 내 해남매일시장 2층 상인회 사무실에서 받으면 된다. 환급소는 영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

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이와 함께 9월 한달간 해남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 1인당 구입 한도는 7만원으로, 지류형과 카드형 모두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35개 판매대행기관(농협, 신협, 축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수협)에서 구매 가능하며, 카드상품권은 판매대행기관에서 발급한 후 지역상품권을 통해 구매(충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해남사랑카드 또는 정보무늬(QR)상품권 결제시 환급 행사도 지속한다.

상품권 가맹점에서 카드나 정보무늬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이용자에게 결제액의 5%를 되돌려 준다. 카드상품권 이용자는 구매시 10% 할인을 받고 결제시 5% 환급금이 추가 적립이 돼 15% 할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가게 부담을 덜고 온가족과 친지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상품권 행사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

영암 모산리 황금 들녘서 조생종 벼 ‘조명 1호’ 수확 쓰러짐 강하고 밥맛 좋아

영암군 신북면에서 추석예 앞두고 조생종 벼 수확이 한창이다. 3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우습희 영암군수가 조생종 벼를 수확하고 있는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들녘을 찾아 이상기후에도 고품질 쌀을 생산한 농가에 고마움을 전했다. 8월 중순부터 영암에서 수확에 들어간 조생종 벼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보급한 ‘조명 1호’로 쓰러짐과 익어가는 이삭에서 싹이 나는 ‘수발아’에 강하고, 밥맛이 뛰어나다. 올해 여름은 국지성 호우와 장기간 폭염 등 이상기후로 예년에 비해 농가들이 벼 재배관리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을 뚫고 조생종 벼재배 농가들은 병충해 방제, 품질 관리 등으로 벼를 생산했고, 이번 작업 결과 전년보다 더 많은 수확량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습희 영암군수가 농기계를 운행하며 조생종 벼를 수확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우습희 군수는 “농업의 근간인 쌀을 짓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황금 들녘 등 다양한 기능성 쌀 생산을 확대하겠다”며 “동시에 영암쌀 소비 촉진과

판매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무안, 선택·집중 정책 추진 내년도 본예산 편성 본격화

정부 예산정책기조 등 교육 운영 무안군은 “최근 2025년 본예산 편성 교육”을 진행하며 내년도 예산편성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정 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부서별 예산편성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 예산정책기조 ▲202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예산 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 사항 ▲예산 편성 사전절차 및 추진 일정 등이다. 무안군은 경기침체, 부동산 거래축소로 올해 상반기 국제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10조원이나 줄어 정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필급한 예산 위주의 편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경상경비 절감, 유사·중복사업 및 효과가 저조한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감소로 인한 부족 재원을 확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무안군 미래에 필요한 정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사업별 계획수립, 사전절차 이행, 부서별 예산안 요구, 심의조정을 거친 후 12월 개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본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주민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예산을 편성하고, 국·도비 확보를 통한 부족 재원 확충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 기자

“고향길 안전하게”...목포해경, 추석 연휴 유·도선 안전 강화

10월31일까지...9일 기동·자체점검 실시 목포해양경찰서는 3일 “오는 10월31일까지 60일간 가을 행락철 및 추석 연휴 대비 관내 유·도선 16척에 대해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을 이용한 유선 이용객이 증가하고, 귀성객으로 인한 도선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목포해경의 관내 추석 연휴 1일 평균 이용객 현황에 따르면 9월 평시 대비 추석 기간 이용객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추석 기간 유·도선 이용객은 평시 유·도선 이용객 대비 유선은 121.6% 증가했고, 도선은 54.7% 증가했다. 이에 목포해경은 ▲추석 연휴 대비

기동점검 운영 ▲도선 사업장 비상상황 훈련 참관·지도 ▲차량 적재 도선사업 안전관리 등을 중점 사항으로 설정해 추진한다. 특히 오는 9일까지 유·도선 및 유·도선 선착장 중 22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연휴 대비 기동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주요 안전 저해행위 중점 단속을 통해 예방중심 단속을 강화하고, 태

풍 등 기상악화 시 다중이용선박 운항 관리 강화를 통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예정이다. 주요 안전 저해행위는 ▲무면허 영업 ▲영업구역·시간 ▲항행조건 위반 ▲주류 판매·제공·반입 ▲과적·과승 ▲승객 안내 및 매뉴얼 비치 위반 등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급증하는 유·도선 수요에 대비해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푸드아트 테라피로 마음 더 돈독하게”

신안가족센터,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진행

신안가족센터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개선 및 향상을 위한 ‘푸드아트 테라피 서로 마음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의견 대립으로 갈등을 빚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두드림 심리상담센터 김필양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프로그램에는 11개 가정의 참여한 가운데 음식을 재료로 평소 쉽게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다은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더 잘 알아갈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부모도 역시 자녀와의 관계가 한층



가까워졌음을 느끼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신안가족센터 관계자는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신안=양훈 기자



영광군은 최근 군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 제고를 위해 부서장, 팀장 등 고위 공직자부터 MZ 신규 공직자까지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공직자 청렴 골든벨 대회 개최

청렴 의식 함양·직원 소통 강화 영광군은 “최근 군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 제고를 위해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에는 부서장,

팀장 등 고위 공직자부터 MZ 신규 공직자까지 150여명이 참여했으며,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렴 선서와 결의식을 통해 청렴 의지를 다졌다. 퀴즈 대회는 객관식, 주관식, O·X 등 다양한 문제 방식으로 상식과 더불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제도 전반을 다루는 퀴즈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청렴에 대한 지식을 쌓고 청렴 의식을 함양했으며 퀴즈 대회 중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유도해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퀴즈 대회에 참여한 직원은 “청렴과 관련된 퀴즈를 풀며 평소 알지 못한

법 규정 등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정섭 영광부군수는 “이번 퀴즈 대회는 직원들이 청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퀴즈대회에서 보여준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강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

관련 용역 최종보고회...놀이터·조형물 등 설치

강진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2025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 오는 2025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입해 강진읍 소재 사외계 주변 거리에 어린이 목재 놀이터, 조형물, 포토존, 울타리 등 목재를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친환경 도시 재생 사업이다. 보고회에는 이병철 강진부군수를 비롯한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 및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산림청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자료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이용자들의 그늘 문제 해결 방안, 안전성 확보, 유지보수, 전기료 절감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진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낙뢰 발생 시 조형물 안전성 확보와 목재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조형물 방법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강진=정영록 기자